

제시안 없음 · 2차 축소교섭



6월 12일(목) 모베이스전자에서 7차 집단교섭이 열렸다. 사용자는 10개사 17명, 조합은 11개 사업장 50명이 참가했다. 지난 6차 교섭(6.5)에서 노사는 축소교섭을 열어 집단교섭 협약서 요구의 세부 내용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

투쟁 판단 않도록 노력 당부

공충국 사용자 대표(디와이피)는 “교섭이 진행될수록 논의가 더 어려워진다. 축소교섭을 이어가되, 요구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은 차기에 하겠다. 진전을 바란다”며 무겁게 인사했다.

이규선 지부장은 “임금 등 각사별 논의가 진행되는 것 지켜보고 있다. 경우에 따라 투쟁이 불가피하겠다는 생각이다. 그러지 않도록 노력하자. 협약 논의를 빨리 정리해 놓고 임금을 집중 논의하면 원만하게 되리라 본다”며 교섭 지연으로 투쟁을 유발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제시안 없음

6.5 5차 교섭에서 1차 제시안을 낸 후 사측은 7차까지 추가 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지난 교섭에서 지부는 “협약서 관련 쟁점 사항을 정리해 오면 축소교섭에서 성실히 질의응답하고 논의하자, 임금 포함한 제시안을 차기에 꼭 내달라”고 당부했었는데 제시안이 없었던 것. “제시안 낸다고 약속 안했다”는 황당한 태도에 엄미야 사무국장은 “매번 교섭에서 성실하게 안을 제시하고 논의하는 게 기본 아닌가. 중앙교섭도 약간의 안이 나왔는데 그것 포함해 제

시해야 노사가 통일·중앙 요구 논의를 이해할 수 있다. 임금도 제시안 없으면 추후제시라도 써서 내야 진전되지 않겠는가”라며 신의성실하게 진행해 왔던 지난 집단교섭의 역사를 후회시키지 말라고 강조했다. 사측은 그러겠다고 답했다.

이어서 집단교섭 협약서 관련 2차 축소교섭을 진행하고 결과를 공유했다.(내용 뒷면) 교섭을 마무리하며 지부는 “결심하면 안 될 것 없다. 차기에 임금 포함 제시안 내라”고 당부했다.

오늘도 발길은 이앤에스로

축소교섭이 이뤄지는 동안 교섭위원들은 모베이스전자 현장을 순회했다. 교섭을 모두 마친 후에는 지난 주와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화성공장으로 이동, 이앤에스지회를 지원하는 선전전을 진행, 퇴근하는 노동자들을 만났다. 일찍 뜨거워진 날씨만큼 연대의 열기도 앞장서 키워간다.

8차 교섭 + 3차 전체교섭단 모임

차기 교섭은 6.19(목) 우창정기에서 열린다. 이날은 3차 전체 교섭단 모임을 열고 교섭위원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은 ‘전자산업 노동권 확산과 이앤에스 투쟁의 의미’라는 주제로 진행, **6.25(수) 삼성전자 화성공장 앞에서 열리는 지부 1천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앞두고 우리가 이앤에스와 함께하는 ‘전자산업 노동권 확산’ 투쟁의 의미를 깊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협약서 뭐가 쟁점? 사측은 결단하라!

집단교섭 기존 합의, 뭐가 들었나

올해 지부 요구로 '집단교섭 협약서 정리'를 결정하면서 지난 연도별 합의 내용을 영역별로 분류했다. 대략 다음과 같다.

조합활동시간 지부 총회 4시간, 지부 확대간부 수련회(교육) 2박 3일, 지부 부서와 위원회 월 활동 시간, 지부 교육위원 활동시간, 조합활동 시 산재 인정 등

고용안정 적정인원, 조합원 징계·해고제한, 비정규직 채용 제한, 해외공장 등

노동시간 통상임금 산정 기준 209시간, 주간연속 2교대 등 노동시간 단축

노동안전보건 공동지정병원, 정기검진, 분기별 조합 주최 노안교육, 재해보장, 발암물질 사용금지 및 예방, 위험성평가, 감염병으로부터의 보호, 산재 사망자 유가족 우선·특별 채용, 안전보호구 및 작업복 세탁, 중대재해발생시 조치 등

임금 통상임금 범위, 임금체계 개편 시 노사 합의 및 임금저하 불가 등

성평등 및 모성보호 유사산 보호 휴가, 배우자 유산휴가, 가족돌봄휴직, 출산 휴가 등

사회공헌 지역·공동 직장보육시설 운영, 취약계층 제조업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공헌기금, 사회공헌기금, 산업전환협약, 기후정의를 위한 녹색협약, 공민권 행사 보장, 정년퇴직자 교육 프로그램, 이주노동자 처우 개선 등

단계적 시행, 기존 합의 조정 불가

축소교섭에서 사측은 위 밑줄 친 10여 가지 조항에 대해 질의했다. 단순히 시행 현황을 확인하

는 질문들이 많았고, 현행법보다 낮거나 현실적으로 시행되지 않는 조항, 이미 기한이 끝난 단서 조항들에 대한 조정 방안에 대해 물었다.

각 조항에 대한 질문 외에 협약서 전반에 관해서는 '단계적 시행이 가능한가', '기존 합의 내용의 수정이 가능한가'를 물었고, 이미 지난 5년간 단계적 시행 기간을 가진 것이며, 기존 합의는 이를 적용·이행하고 있는 6개사가 있어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핵심 쟁점, 결단하라!

이미 합의한 내용들을 통합 정리하는 협약서를 만들자는데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것은 집단교섭 10개 사 중 후발 4사에 아직 적용되지 않은 기존 합의들 중 몇 가지 때문이다.

축소교섭 위원들은 '209시간에 대해 왜 질의하지 않는가' 물었고, 사측은 질문을 하자 그제야 '사실상 수용불가라 질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섭을 진전해가는 가운데 쟁점이 될 법한 항목을 추려서 논의하자는데 핵심 쟁점은 빼고 단순질의에 해당하는 사안들로만 잔뜩 질문을 한 것이다. 쟁점 사항을 논의하지 않고 시간을 끌며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교섭 후 교섭위원들은 "사측이 이 정도 수준으로 축소교섭 하면서 시간을 끈다면 기존의 지부·노조의 계획된 투쟁 외에도 지부 전체의 투쟁을 보여줄 시기와 계획을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교섭이 벌써 7차에 이르렀지만 제시안은 1차례 밖에 안 나왔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로 언제까지 이렇게 진행할 수 있을까? 사측의 결단이 필요하다.